

제3회 시문에 현상공모 당선작 발표

당선작

모리만 되어지고 있었다

저물녘 바닷가에 비스듬히 서 있겠 우리집
밤부터 허물어지고 있었다 파도의 잦은 삼절에
침이 기울고 있었다 뒤편부터 흔들려기
시작했다 대숲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고
분창으로 바다가 거세게 들이쳤다
이미 방바닥은 철이들고 벽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며칠 밤이 계속 되었다 식구들은 바다에 떠오르다가
선물에 밀려가고 벗겨진 몸으로 다시
해안선에 걸려 있었다 거칠한 이들이 누워있었다
해안선은 언제나 불안하다
파도가 아니라 거대한 기둥이었다
중창비장은 한 때의 엄청난 이들이 물려와
짐을 모조리 파내어 바다를 매립하고 있었다
소리쳐 불어내려 할 때마다 중창비는
나를 하늘 높이 끌어올리기도 하고
바다 속 깊이 처박아 물을 먹였다 파도를 당해낼
계간이 나에게는 이미 없었다 때속까지 물이 들기
결국 버려졌다 버려졌다 버려져 버렸다
그날부터 나는 머리만 떠오르고
있었다 바다위로 아무것도 없었다
박윤서(드문·4)

공모후기

대학문예의 질적 발전과 학내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된 시문에현상 공모가 올해로 세번째를 맞이하였다. 특히 이번 시문에 현상공모는 대학주요 지향 일련호를 맞이하여 더욱 뜻깊게 치러졌다고 할 수 있었다. 총 3백74편의 응모작 중 당선작 1편과 가작 2편, 그리고 입선작 4편을 선발한 이번 공모에서 당선작에는 박윤서(국문·4)의 '머리만 떠오르고 있었다'가 가장 눈에 띄었고, '아내에게'와 '가을 노래'가 각각 당선되었으며, 입선작에는 이명철(영문·3)의 '문장도' 한경애(국문·3)의 '태평대 戀歌 1' 이현숙(국문·4)의 '용산강 집자에 내리는 비' 박정환(국문·3)의 '舞臺記' 등의 작품이 당선되었다. 문학을 대하는 태도의 진지함과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통찰과 해석력의 구

비 여부, 지극적인 탐구를 통하여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번 심사에서는 나호일(시인)씨가 예심을 맡아 21명의 작품을 뽑았으며, 박이도(문리대 교수·시인), 김재홍(문리대 교수·문학평론가), 김중희(문리대강사·문학평론가) 세등 3인이 본심을 보고, 심사위원장은 본사의 주관인 이석우교수가 맡았다. 이번 공모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수필캠퍼스 학생들의 참여도가 대폭 증가하여 (총 138편) 비록 당선작은 못했으나 본심에서 많은 작품들이 눈에 띄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참여에 힘입어 앞으로 대학문예의 활성화와 문예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학주요가 되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계속하며, 독자층의 많은 격려와 충고 있기를 바란다. (문학부)

가을 노래 가작 아 내 에 게

가을노래
높은 곳에도
가을이 왔습니다
집없는 이들은 하늘을 봅니다
이 계절이 그들에게 주는 것은
서늘한 바람
아픈 생활
하늘 주변에
얹게 퍼지는 구름
그들은
옷을 털어
가을의 무늬를
지우고 있습니다
최 중 환
<국문·3>

그날, 오후부터 부슬비가 등을 적셨고
무겁게 내려치는 손에 돈 망치가
허공으로 추락한 것은 순간이었
다 아니 그것은
순간을 지나 식당을 다니겠다는
아내의 침묵을 관통하고 있었다
백열등 희미하게 쳐다보는
부엌에 웅크려 정형은
쌀을 씻고 있다
아내의 얼굴
무감각한 식당밥을 짓고 있을 아
내의 얼굴이
뒹구는 손가락사이 빠져나가는
쌀알에 쏠려나간다
그렇다면
늘어진 팔자목을
어둠에 적으며 돌아올 아내여

방에 독촉하던 아줌마를 슬퍼하
진 말자
길치에다 내 짓은 따뜻한 밥으로
눈물만 흘리지
상처는 우리의 것이요, 눈물의
것이리라
당기는 근육과 사랑은 또한
우리의 것이요, 눈물의 것이 아
니겠는가
슬픔은
무언지도 넘어져
상처로 단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루종일
분대감긴 발목을 파고드는 빗소리
흔비단만한 부엌에 웅크려 정형은
쌀을
꼭 움켜쥐어 씻는다

심사평

제3회 대학주요 시문에 현상 공모에는 모두 80명이 4백여편의 시를 응모하여, 이에 대한 예비심판의 높은 관심과 호응

가작 '가을노래' (최중환)는 짧은 사이지만 시상이 깨끗하고 시

세계관 조정하는 고투의 노력

경희 시문학에 큰 물줄기 형성해야

을 볼 수 있었다. 이 중에서 예심을 통과하여 올라온 21명의 시를 심사위원들이 둘러가며 읽었는데, 평범한 수준을 넘는 우수작이 여러 편이었고 전방적인 기량도 예년에 비해 더 향상된 것으로 보였다. 학생들의 지향한 창작의향과 시문에 현상공모의 제도적 장치를 함께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반가운 일이었다. 본심 대상자들의 시를 읽고 각자의 평점을 종합하여 절반 정도를 보다 나은 작품을 가려내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심사하여 당선 1편과 가작 2편 및 입선 4편을 선정하였다. 입선에

를 시답게 하는 언어의 감각이 살아있어, 총명한 가능성을 가진 시로 평가되었으며, '아내에게' (신재우)는 삶의 어려움과 고통스러움에 대항하는 초극의 의지를 큰 무리없이 담아내어 곤고한 노동의 개념이 가진 단단한 자질 속에 슬프고 애절한 감정을 차연스럽게 풀어놓은 값진 작품이었다. 이들 두편의 가작은 가시 단선작에 못지않은 시적 형상력을 보이고 있어서 계속해서 단련해 나가면 고유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4편의 입선작 가운데 '귀향

이미지의 활용이나 더욱 치밀한 시어의 조화 등에 미진함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의 대학인들이 한결 유연한 태도를 지니고 세계의 상투성을 초월하는 고투를 볼 수 있었다. 또한 그와같은 내용을 담아내는 형식의 연마에 있어서도 저지 않은 노력의 흔적을 내비쳤을 수 있었다. 이 작은 흐름들이 모여 경희시문학의 융성에 지대한 물줄기를 형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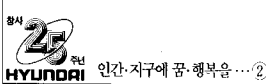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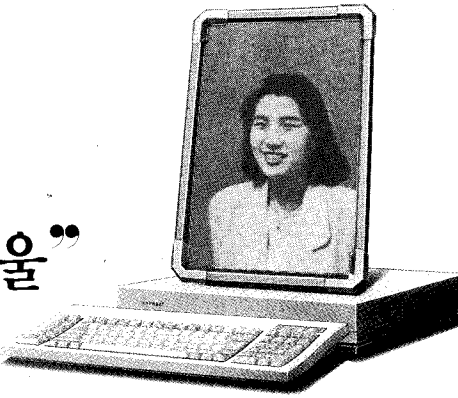
심사위원 : 본심-이석우·박이도·김재홍·김중희(글)
예심-나호일



1991년 1월 입사
마케팅부 조사기획 담당

오경화

오경화氏의
“아침마다 만나는 까만 거울”



아침, 부당한 사무실에서

아침 인사가 오기는 활기찬 사무실 —
오늘도 나는 퍼스널컴퓨터 앞에 앉아
의자를 바짝 끌어당긴다.
전원을 넣지 않은 까만 모니터는
매일 아침 마주하는 친근한 거울,
그 위로 비치는 지난 날의 모습들...

수업료를 주는 특별한 학교 —

큰 맘 먹고 맡아맡은 입사지원서가
합격통지서로 되돌아 온 1991년 1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설레임도 잠깐,
회사는 엄청난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다.
전산교육, 토목강좌, 영어회화, AFKN정취력...
내게 있어 회사는 도리어 수업료를 주며 가르치는
아주 특별한 학교였다.

회사가 내게 준 첫번째 일 —

“소바서는 어떤 수행자를 원하는가?”
이것이 회사가 내게 던진 첫번째 질문이자 임무였다.
「소형 신자중 개명을 위한 소바서 조사」 —
나와 우리팀 5명은 최선을 다했고
만 3개월만에 세운을 끝낸 결과보고서가
마침내 두툼한 한편의 책이 되어 나왔다.
그날의 가슴 벅찬 기분이란...

컴퓨터의 전원을 넣으며 —

컴퓨터의 전원스위치를 넣으며
까만 모니터에서 사라져가는 얼굴에게 묻는다.
“나는 무엇이며 어디로 가고 있나?”
그리고 자신있게 대답한다.
“나는 현대자동차라는 거대한 범선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조타수이고
우리의 배는 세계를 향해 가고 있다” 라고.

우리의 차, 세계의 차 —

현대自動車